

KIA “대권 탈환” 거침없는 레이스

日 전지훈련 귀국 후 실 틀 없는 강행군 투·타 업그레이드... 삼성 등과 연습 경기

‘더 높고, 더 강해졌다.’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가 강행군을 이어가며 2011시즌 대권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3일 재활군의 훈련을 시작으로 판과 일본에서 2달여간 전지훈련을 가졌던 KIA는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여유도 잠시, 선수들은 5일 곧바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소집됐다. 5일 오후 1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선수단은 반나절 훈련을 소화했다. 6일에도 오전부터 훈련이 시작됐다. 실 틀 없이 스파이크 끈을 조여맨 선수단은 이날 오후 대구행 버스에 올랐다. 7·8일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조범현 감독은 “스프링캠프를 통해 마운

드는 큰 틀을 잡기는 했지만 타자들의 컨디션은 아직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연습경기와 시범경기를 통해 라인업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범현 감독은 9일 광주에서 SK 와이번스와의 연습경기를 잡아줬다. 11일에는 넥센 히어로즈와 연습경기를 치른 뒤 12일부터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 타자의 육성을 가릴 생각이다. 이번 캠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 감독은 “볼펜과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캠프의 속제였다. 윤석민, 양현종, 서재우, 로페즈, 트레이비스로 선발진을 구성하고 김희걸, 박경태, 박정배가 돌아가면서 6선발을 맡을 계획이다. 마무리의 경우 유동훈, 손영민, 박정철 등을 시험하겠다. 지난해에 비해 볼펜이 확실히 안정되고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귀국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타자들의 강행군에 대해서는 “스피드와 정확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힘든 부분을 이겨나가면서 선수들이 독재자를 기대해 많은 훈련을 주문했다”며 “선수들이 잘 버텨주었고 중도에 귀국한 최희섭, 나지완, 김원섭 등의 부상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 시범경기를 거치면서 점차 타자들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7일 광주에서는 잔류군과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가 치러진다. 이종범 등 고참급 선수들과 광주에 남은 윤석민은 마운드에 등판해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JLPGA 개막전 우승

이보미 공동 3위 성공 데뷔

박인비(23·캐나다·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개막전에서 역전 우승을 일궜다. 박인비는 6일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장(파72·6439야드)에서 열린 다이킨 오키타 레이디스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무려 6타를 줄여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적어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선두로 달려던 후지타 사이키에 3타 뒤진 공동 5위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박인비는 전반에만 5타를 줄이는 무서운 저력을 발휘했다. 특히 7번홀(파5)부터 3홀 연속 버디를 낚아 전반이 끝날 때부터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17번홀까지 2위 사이키 미키와 2타 차를 유지하던 박인비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약 1.8m짜리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3타



차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니시진 레이디스 클래식과 투어 챔피언십에 이어 일본에서 통산 3번째 우승을 신고한 박인비는 우승 상금 1440만엔(약 1억5900만원)을 챙겼다. 박인비는 “첫날 샷이 흔들려 불안했는데 둘째 날 감을 잡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다. 오늘도 편안하게 치자는 생각으로 임했다”면서 전반에 버디 5개를 낚으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4관왕에 오른 이보미(23·하이마트)는 송보배(25)와 공동 3위(7언더파 209타)에 오르며 일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신지애(23·미래에셋)는 공동 5위(6언더파 210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양용은, 혼다클래식 우승 경쟁

양용은(39)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 셋째 날 3타를 줄여 공동 2위에 올랐다. 2년 만에 타이틀 탈환을 노리는 양용은은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PGA 내셔널골프장 챔피언스 코스(파70·715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썩었다. 전날 공동 8위까지 떨어졌던 양용은은 3라운드까지 중간합계 4언더파 206타를 쳐 제리 캘리(미국)와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 로리 사바티니(남아공·9언더파 201타)와의 격차는 5타로 다소 커 마지막 날 역전 우승을 위해서는 힘든 경기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드라이버 비거리를 287.5야드까지 끌어올린 양용은의 페어웨이 안착률은 71%로 지난 두 번의 라운드와 비슷했으나 그린 적중률이 78%로 상승했다. 전반에는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해 타수를 줄이지 못한 양용은은 후반에 뒷심을 발휘했다. 양용은은 9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으나, 10번홀(파4)부터 착실히 파를 세이브하다가 14번홀(파4)에서 어프로치샷을 90cm 이내에 붙여 버디를 잡으며 신바람을 냈다. 2라운드에서 타수를 잃었던 난코스 ‘베어 트랩’(15~17번홀)에서도 17번홀(파3) 버디로 타수를 줄였다. /연합뉴스



이승엽, 터졌다

시범경기서 솔로포·2루타 3타점 폭발... 박찬호 부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재기를 노리는 이승엽(35·사진)이 시범경기에서 첫 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부활’을 예고했다. 같은 팀 박찬호(38)는 공식 데뷔전에서 호런 신고식을 치렀다. 이승엽은 6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회초 선두 타자로 타석에 나와 주니치 선발

투수 벨슨의 포크볼을 강타해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110m짜리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불붙은 방망이는 5회에도 꺼지지 않았다. 5회초 1사 2, 3루의 기회에서 다시 벨슨과 상대한 이승엽은 작구를 때려 우월 2루타를 뽑아내며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날 총 3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린 이승엽은 7회초 대타 이토 히카루로 교체됐고, 시범경기 타율은 0.231을 기록했다. 이승엽의 맹활약에 힘입어 오릭스는 주니치에 7-6으로 이겼다. 한편, 박찬호는 전날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 4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7

대한항공, 프로배구 사상 첫 정규리그 정상

챔피언결정전 직행

대한항공이 남자 프로배구 역사상 처음으로 삼삼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양강 체제를 무너뜨리고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대한항공은 6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NH 농협 2010-2011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방방경기에서 LG손해보험을 3-0(25-19 25-21 25-23)으로 꺾었다. 시즌 23승 4패로 2위 현대캐피탈(20승 8패)과 승차를 3.5경기로 벌린 대한항공은 남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으며 챔피언결정 티켓을 따냈다. 2005년 출범한 프로배구에서 삼삼화재와

현대캐피탈 외의 팀이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브와 리시브 등 기본기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올라온 대한항공은 이날 팀 역대 최고인 12연승을 작성하면서 꿈에 그리던 정규리그 완주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13-12에서 용병 에반 페이텍의 강타가 폭발하면서 19-15까지 격차를 벌리며 1세트를 먼저 가져왔다. 2세트에는 레프트 김학민이 대한항공의 해결사로 나섰다. 김학민은 15-15에서 연달아 강타를 쏘아 승기를 굳혔다. 대한항공은 3세트에는 대역전극을 펼치는 저력까지 과시했다. /연합뉴스

獨오픈 셔틀콧 결승

이용대·정재성-김기정·김사랑

태극전사들 맞대결

한국 셔틀콧 남자복식의 ‘간판’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삼전기)이 새롭게 호흡을 맞춘 김기정(원광대)-김사랑(인하대)과 2011 독일 오픈 셔틀콧 결승에서 태극전사 맞대결을 펼친다. 세계랭킹 3위 이용대-정재성은 6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쾰히암 안데어부르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5위

쿠키키트-탄분형(말레이시아)을 상대로 경기 시작 27분 만에 2-0(21-9 21-11)로 제압했다. 1세트부터 쿠키키트-탄분형(말레이시아)의 득점을 9점으로 묶은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도 한수 앞선 기량으로 초반부터 점수 차를 벌이며 손쉽게 승리를 맛봤다. 또 한국 선수끼리 맞붙은 준결승에서 ‘신예’ 김기정-김사랑은 세계랭킹 2위인 고성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승마장용도 광주근교 임야 5-10만평 구함

-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부채도로 접합, 당. 1,886㎡(570평), 3.3㎡당 90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서광주역 부근 2,148㎡(650평), 당. 3.3㎡당 72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매월동 앞 1,720㎡(520평), 당. 3.3㎡당 65만원, 생산녹지.
-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회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960,000원, 조망 경관양호.
- 쌍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로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235만원, 커넨타, 4칸, 임무용빌딩 적합.
-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합, 993㎡(300평), 매매가 18%,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 건물매매(용부지구)
 - 신안동 용부지구 옛 대지367㎡(111평), 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 15억, 보증금 6,000만원, 월330만원, 근린생활시설 임업.

중양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증금: 10억원 월세: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73억원
 -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32억원
 - ☆.보증금: 8억2천 월세: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28억원
 - ☆.보증금: 1억1천 월세: 350만 매매가: 6억7천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322㎡ 건물: 95㎡ 매매가: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66㎡ 매매가: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1,330㎡건: 60㎡ 매매가: 2억8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공신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담.임야
 - ☆.치평동 대지: 370㎡ 매매가: 13억5천
 - ☆.미륵동(30m도로접대)1,350㎡매매가: 22억원
 - ☆.안동읍 정학촌임야대: 3,600㎡ 매매가4억9천
 - ☆.덕흥동 생산녹지 담 434㎡ 매매가 1억7천
 -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 1억3천7백만원
 - ☆.장성남면 임야: 13,500㎡매매가: 4억5천만원
- 공장부지
 - ☆.광산구 양동(계곡관리지역)접촉지: 11,856㎡ 매매가: 7억9천만원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동구 계림동 고급주택 매매
 - ▶ 출몰버스 부근 준주거지역 대지: 107평 건물 1층: 38.4평 2층: 20.8평 지하: 3평 내부계단 남향 도시가스(5월중) 내부매개 매가: 2억8천
-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인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 ▶ 대 지: ①500평 ②1200평
 - ▶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 ▶ 건 물: ①상가 30평, 창고80평
 - ▶ 상가 200평 공장2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광산구 광산동 그린벨트매매
 - ▶ 농정 임야 및 뒷산지 가능 철도 부지 및 유지 자연녹지 면적: 4000평 권리사: 15평 매매가: 협의후 결정 대형차 진입가능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월동 주거지2160평 공사지5억 매도3억8천
 - 여수시 삼일지역 대지206 건평352 종축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건평가는 20억선 매도10억선
 - 신안동 삼일지 310㎡(94) 공사지3억 매도2억2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코너 상업지 589평 2평면637평 공사지4억2천 매도 23억
 - 북구청 부근 대지207 건평420 공사지7억 매도3억5천
 - 대인동 대지149 건평438 공사지16억 매도 8억9천
 - 송정리 금호도10부근 587평 공사지2억5천 매도2억9천
 - 북구 아파트단지 옥역당, 골프연습장용 대지440 건평 507 공사지9억7천 전매2억5백 월세30만원 13억
 - 광주역 앞 월동 대지108 건평383 건평11억 매도 6억7천
 - 화순군 남면 대곡리 도로접 농림지역 4782평 공장직접 건평가5억7천 대출 2억5천 매도 2억8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2천
 - 충장동 3기 3층건물 대지207평 1층은한복집 금방정착할 1억9천
 - 송하동 산 3965평 공사지1억4천 신고는 2억 매도 7500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용 250평 경관용을 1억7500
 - 남평읍 교리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마감공사용 1억6천8백
 - 신수동 호남한진원 2중주거지 220평 시할 빌라적합 매도2억5천
 - 해남군 단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직접 3억8천
 - 부안군 부안읍 아파트 부지 1054평 11억
- 매도·교환
 - 무암동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용 적합 7억2천
 - 회정동 4기 16차선 도로변 준주거 480평 매도16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용 250평 경관용을 1억7500
 - 남평읍 교리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마감공사용 1억6천8백
 - 신수동 호남한진원 2중주거지 220평 시할 빌라적합 매도2억5천
 - 해남군 단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직접 3억8천
 - 부안군 부안읍 아파트 부지 1054평 11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 근린시설
 - 서구 광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 2층건물 건평가19억5천만 최저가 6억6천만
 - 광산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75평 지하1층 지상층 건평가13억 최저가6억8천만
- 농기시설
 - 함평군 월이면 토지1060평 건물440평 최저가 1억3천만
 - 나주시 세지면 토지670평 건물180평 건평가1억9천만 최저가 7천만
- 근린주택
 - 북구 동림동 토지69평 건물120평 1층상가 2-3층 다가구주택 2억 4천만
- 창고용지
 - 담양군 대전면 토지380평 건물150평 건평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 농기주택
 - 장성군 심서면 대지120평 건물57평 건평가 9천만 최저가 5천만
- 아파트·빌라
 - 북구 두암동 대세대빌라 63평형 1층 건평가 1억5천만 최저가 8천5백만

062-374-5945 010-3162-4989

문의: ☎ 06-644-4265, FAX.523-8558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기 123-6, 우리은행 47번지 1층)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010-3616-8698, 062-233-2222

010-2441-1610